

시리아 시장 개척을 위한 K-할랄 진출 지원

암만무역관, '26.6.5.

1. 추진 배경

□ 시리아는 재건 초기 단계로 산업재보다 소비재 先 진입이 바람직

- 내전 이후 제조기반 붕괴 및 소비재 생산능력 저하
→ 수입 의존 구조 심화
- 식품·생활소비재 등 기초 소비재 수요는 상시 존재
- 향후 재건사업 진출을 위해 소비재 선행진입 성격의 사업, 현지 유통망 물색·인증 통관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
- * '25년 중동 무역투자전략회의시 수립한 전략 등에 의거, 시리아는 단계적 진출 추진 하면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수출 지원 추진(아직 USD Swift 연결이 안되 결제 등 애로)

□ 프리미엄 제품으로서의 K-할랄 이미지 선제적 구축 필요

- 시리아는 전통적으로 가격 민감도는 높으나 외산 제품 선호
- 향후 경제 회복시 수입 식품·음료 수요 폭발적 증가 예상
- 인구 2천만 시장의 미래를 위한 K-할랄 이미지 제고 활동
- * 한류 인지도는 낮으나 SNS 등에 한국 문화와 상품에 대한 자생적 커뮤니티 활동 중

2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시리아 시장 개척을 위한 K-할랄 진출 지원
 -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Food Syria 전시회 계기 추진
- 기간 : 2026년 7월 26일(일) ~ 28일(화), 3일간(잠정)
- 내용 : ① 전시회 부스에 홍보관 구축 및 운영, ② 체험 중심 마케팅, ③ B2B 네트워크 구축
 - (홍보관) 총 13sqm 규모, 상온 보관이 가능한 김치, 파우치 음료, 라면

등의 제품으로 구성하고 TV 등을 통해 관련 콘텐츠도 홍보

* 중동 전쟁 등 정세를 감안, 전시품은 "Korea Day in Jordan (요르단 특화사업으로 신청)" 목적으로 요르단으로 운송된 제품을 육로/항공 등으로 운송 예정

- (마케팅) 샘플 증정 및 체험 → 참관객들 SNS 게시도 유도하여 인지 → 경험 → 향후 구매 가능한 팬층 확보
- (B2B) 현지 바이어, 유통사 상담, 관련 정부 및 협회 접촉하여 단순 홍보가 아닌 실제 거래 기반을 확보

<Food Syria 전시회 개요>

- 장소 : 시리아 Damascus Fairground
 - 주최 : International Fairs and Promotions (IFP)
 - * 45년 경력, 중동지역 약 660개 전시 주최
 - 후원 : 시리아 경제산업부 (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)
 - 참고 : 4P 시리아 전시회 (포장, 산업재 전시회) 및 AgriTEK 시리아 전시회 (농업기술 전시회)와 동시 개최
 - 내전 이전 시리아의 제조업은 GDP의 약 24%, 농업은 약 20%를 차지
 - 제조업과 농업관련 전시회와 함께 개최되어 참관객 많을 것으로 기대
- ※ 동 전시회에 대한 과거 데이터는 없음

3. 협업기관/무역관 업무분장

기관명	주요 역할
대사관	• 시리아 정부대상 협력, 홍보관 설치 지원 등
KOTRA	• 국내기업 모집, 참가바이어 모집, 제품 통관 • 홍보관 운영 (제품 판촉, SNS 홍보등) • B2B 상담 등

4. 특기사항

- ☐ (중동전쟁) 중동 각국 피해에 따른 새로운 판로 개척 필요
- ☐ (정부 중점사업) K-푸드 수출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K-할랄 수출 확대 적극 추진 중
- ☐ (연계사업 시너지) 요르단 Korea Day in Jordan 행사(7.23~7.25)에 참가한 K-할랄기업의 참여 유도하여 시너지 창출